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막 1:40-45)

1968년 전, 높이뛰기 경기에서 선수들은 정면으로 바로뛰기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듣도 못한 방법으로 뒤로 넘는 높이뛰기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높이뛰기의 전설, 딕 포스베리(Dick Fosbury)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금은 포스베리 플롭 기법, 배면 뛰기가 높이뛰기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당시 높이뛰기 선수들은 모두 앞으로 넘었고 2m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딕 포스베리가 처음으로 뒤로 넘었을 때 상식에 위배되는 몰상식한 사람, 정상에 시비를 거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만약 딕 포스베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한계와 틀에 갇혀 정상에 도전했다면 정상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계와 틀에 갇혀서 기존의 사유와 상식, 그리고 타성과 고정관념에 얽매어 산다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람의 딸’이라는 별명을 지닌 한비야 씨와 높이뛰기 딕 포스베리 선수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틀을 벗어나 새장 밖으로, 지도 밖으로 나간 경험이 있다면 그걸 이야기해 봅시다.

1. 나병은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심각한 피부질환을 가리킵니다. 나병이 발병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알렸습니다. 나병환자가 겪는 아픔과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지도 밖으로 행군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_\_\_\_\_ (막 1:40a)
- 2) \_\_\_\_\_ (막 1:41)
- 3) \_\_\_\_\_ (막 1:44)

3. 나병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4.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환자에게 다가가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막 1:41a)

---

5.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나병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_\_\_\_\_

2) \_\_\_\_\_

**[적용]**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 지도 밖으로 행군한 [나병환자], [예수님], [고침 받은 나병환자]처럼 한계와 틀, 율법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 나병환자처럼 희망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긍휼한 사랑을 힘입어 [절망에서 희망]으로 [마이러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